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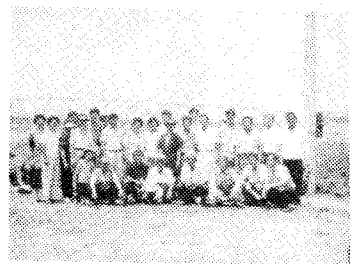
이 모 저 모

재배현장교육 안성군사무소

생약협회 경기도 안성군 사무소(소장·이용황)는 지난 6월 20일 관내 50여명의 생약재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생약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용인, 평택 등 인근 농민과 농촌지도소,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13개면에 걸쳐 생약재배농장을 직접 돌아보고 발아상태, 성장과정, 각종병해방제, 장마철대비 사후관리등 약초재배 전반에 대해 두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자기밭과 재배법을 소개하는 과정은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현장에서의 토론도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용황 소장은 이날 각 품목별 월별로 세밀하게 짜여진 약초재배 관리사항을 인쇄물로 배포하고 장마철 대비 약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특산물직거래장터

오는 7월10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강원도 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농촌 살리기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 축제는 (사)UR대책 농촌살리기 국민운동 사업회 주최, 코카콜라, 코리아나호텔, 효산콘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또, 휴가철 1백만이 넘는 전국 각지의 도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자 찾아 모이는 경포대 해수욕장에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물을 생산지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강원도 특산물장터를 개설함으로써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에게 편의와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협회도 한마당 축제에 참여할 예정.

부산지부회의



생약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지부장·권순직)는 지난 6월10일 정기모임을 갖고, 신규회원 가입과 더불어 회세신장과 지부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갈것을 결의.



◇경동시장을 견학온, 각지역 농촌지도소 약초담당 공무원들이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을 돌아보고 이종용 회장과 함께.

손쉬운 민간요법 부종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췌

잉어와 붉은팔

잉어는 예부터 부종을 제거하는 약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유효성분은 계절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노작용과 관계있는 크레아틴, 크레아티닌, 포스포릭 에시드가 함유되어 있다.

사용법 : 갑작스럽게 전신 특히 얼굴과 몸이 많이 붓는 증상은 잉어에다 술을 넣고 끓여서 술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서 먹으면 부기가 저절로 없어진다. 신장염으로 전신이 부어오르는 증상에는 잉어의 내장과 꼬리, 머리, 뼈 등을 버리고 오로지 고기만을 가려서 여기에 붉은팔을 넣고 끓여 먹으면 부종이 없어진다.

임상 실험에서 보면 위의 방법대로 하여 소금과 식초, 기타 조미료를 넣지 않고 식사 전에 먹으면 병이 중한 사람이라도 하루만 지나면 효력을 보며 경증인 사람은 곧 치유된다.

간경화로 부종과 복수가 있을 때에는 잉어에다 붉은팔을 넣어 끓여 먹으면 소변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복수가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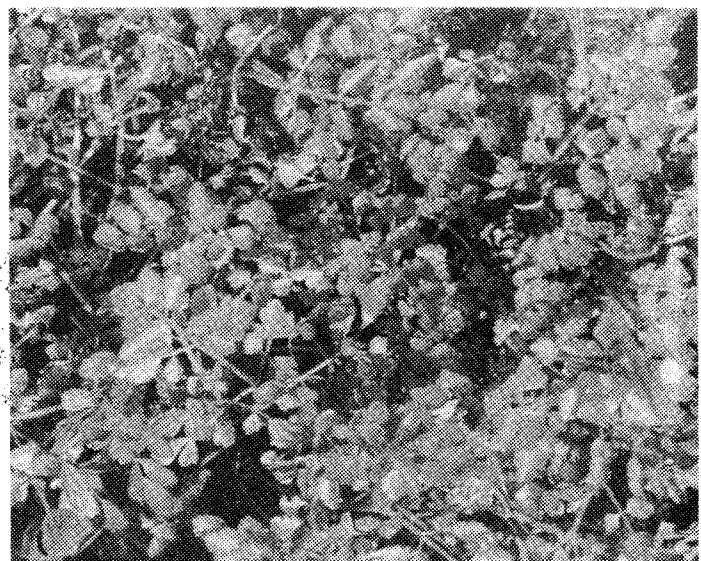
약을 끊고 난 뒤에도 소변의 증가 현상은 계속된다.

만성 신장염에는 잉어에다 녹차를 넣고 끓여 마셔도 이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효력을 나타낸다. 유방에 염증이 있거나 알코올성 중독에는 잉어 한 마리에 팔 한 되의 분량으로 하여 물을 붓고 끓여서 하루 3번 식사 전에 먹으면 해독 효과를 본다.

효능 : 붉은팔은 맛이 달고 약성은 평범하다. 성분에는 단백질이 20.7그램, 탄수화물 58그램, 조섬유 4.9그램, 회분 3그램 등이 들어 있다.

이 약은 체내에서 독성을 풀어주고 이노 작용이 현저

하여 전신에 부종이 일어나고 자리에 누울 수 없고 머리와 전신이 부어 있는 증상에 유효하다. 또한 갑자기 부종이 나타나서 소변의 양이 감소되었을 때에도 긴급하게 쓰인다. 간경변증이나 간염으로 부종이 있을 때도 많이



◇미나리는 소변의 양이 줄고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에 해열, 이노작용을 한다.

어면서 소변의 양을 증대시키는 식품이다. 이런 효능은 활용되며 황달, 각기, 급성 이하선염 등에도 소염 및 이노, 해열 작용을 나타낸다.

마늘과 수박

사용법 : 수박의 꼭지를 떼고 속을 약간 파서 마늘 5쪽을 넣고 다시 수박 꼭지를 덮고 24시간 서서히 불에 태운다. 탄 수박은 모두 버리고 마늘만 하루 3번 식사 전에 먹는다.

효능 : 마늘은 약성이 따뜻하며 소화기관을 덥게 하면서 소화력을 높여 주는 약이지만 이노 작용은 지극히 미약하다. 단지 이노제와 배합했을 때에는 그 효능이 인정되지만 하나만으로는 그 작용을 볼 수 없다.

수박은 체내에서 열을 없

약리학적이나 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 두가지를 사용하여 부종을 치료할 때에는 갈증을 일으키면서 수분의 섭취량이 많은 여름에 반응을 얻는다.

미나리와 가물치

사용법 : 내장, 머리, 꼬리 부분을 없앤 가물치 한 마리에 미나리 한줌을 넣고 끓여 그 물을 하루 3번 식사 전에 먹는다. 이것을 여러번 반복해서 먹으면 복수와 부종이

없어진다. 이때에 소금은 먹지 않아야 한다. 주로 신장염으로 부종이 있을 때에 유효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효능 : 미나리는 소변의 양이 급격하게 줄고 소변 색이 붉으며 용변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에 해열, 이노 작용을 한다.

본래 서늘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번열 증상과 열이 지속되는 것을 없애므로 신장염, 요도염 등의 부종과 소변을 못 볼 때, 용변할때 피가 섞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한 번의 최대 사용량은 80그램 정도이다.

가물치도 이노 작용이 있어서 얼굴과 전신이 붓는 증상과 소변의 배설량이 갑자기 감소될 때에 좋은 효과를 본다.

생약인의소리

“값싼 수입약재 선호분위기 우리농민들 힘겹게 합니다”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로 꾸준히 발전해 온 우리의 전통생약은 그 약성이 우수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진 보배를 외면하고 무조건 값싼 수입약재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 농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WTO 협정으로 국경없이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돼 있고, 최고의 기술, 최고의 상품을 앞다투어 개발 개방화 붐을 타고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경쟁이 안된다고 주저앉아 포기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난관을 헤치고 수입 개방화에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의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우리 전통생약의 특수한 약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것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농촌을

살리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5리 박영입>

최근 정부에서는 수입개방화로 부터 우리농촌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발전대책기금이 확대하여 특용작물분야에 여러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5~6명으로만 구성돼 있는 영농조합법이나 작목반들에게는 1년에 기천만원씩의 농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작 1만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는 생약 생산자단체인 생약협회로는 이렇다할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지요.

UR대체작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초, 그 약초재배 농민들로 구성된 생약협회 산하로도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7리 85 함승주>